

国家的 次元의 事業展開에 注力

80年度 予算案심의코, 事務總長도 認准

閔會長, 第2次 理事会·評議會서 強調

閔寬植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 會長은 19일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열린 第2次 理事會에서 “80年度의 科總은 國民앞에 내놓을 수 있는 國家的이며 特色있는 事業을 구상해서 展開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과학기술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閔회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지나해는 月例 會長團會議을 열어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고 말하고 “새해에는 과학기술인의 중지를 모아 보다次元 높은 일을 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閔寬植회장은 곧이어 회원단체대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評議會에서 정부 보조사업인 학회 학술 활동사업에 대해 학회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고 “과학기술인의 총본산인 연합회의 발전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자가 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閔회장은 또한 헌법 제123조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내용이 헌법개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의 견교환을 나눈바 있다”고 밝히고 “10만 과학기술인들의 總意를 모아 建議文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鄭助英사무총장을 正式 認准하고 80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회장단 회의에서 부분적인 검토를 한후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원단체로부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건의 및 관계법령의 개정안등을 접수 종합

하여 총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對政府 建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리고 연합회회원의 會費引上 調

整案을 수정없이 승인 통과시켰으며 11개 학회의 新規加入申請案은 차기 회장단회의에서 審議, 承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成佐慶 박사 就任 第4代 科技處長官에



第4代 科學技術處長官에 成佐慶박사가 就任했다.

政府는 14일 前任 崔鍾洸 장관을 建設部長官으로 轉任하고 한국化學硏究所長인 成佐慶박사를 과기처장관으로 발탁 起用했다.

成 장관(59세)은 學界와 연구소장을 두루거친 행정에 능한 과학기술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출생으로 42년 日本東京大學 應用化學科를 졸업하고 64년 서울대에서 「高分子물질의 열분해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成長官은 국방부화학연구소부소장, 한양대경영대학원장, 원자력연구소장, 원자력청장, 인하대총장, 대한화학회장을 역임했다. 76년에는 정부와 1백36개 민간기업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韓國化學硏究所 초대소장에 부임,

현재에 이르렀다.

科總理事이기도 한 成장관은 42편의 有機 및 高分子化學分野의 論文을 발표하여 化學工業발전과 후배양성에 크게 공헌하여 國民勳章 多枚章, 科學賞(大統領賞 75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나지 않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통하는 成장관은 바둑이 1급실력이며 가끔 골프를 즐긴다고.

부인 李福寧여사와의 사이에 1男 4女가 있다.

倫理要綱 改正案등 檢討 科總, 第5次 會長團會議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11월 29일 연합회회의실에서 79년도 제5차 會長團會議를 開催하고 科學技術者倫理要綱 개정방안 및 元老 科學技術者 봉사활동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8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자 윤리요강” 개정은 소위원회 결정에 따라 마련된 科學技術者 信條(案)를 전문가에게 檢討시켜 개정키로 했다.

第1回 科学化模範事例發表盛了

優秀賞에 (一般) 李盛一씨, (主婦) 高秉璇씨, (學生) 李鎮熙君

科總主催, 市民·學生 등 7百余名 參加

科學精神을 구현하여 합리적인 思考와 창의적인 應用으로 이룩한 事例를 발굴함으로써 전국민 과학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한 第1回 科學化模範事例發表會가 12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학생, 주부, 과학기술계인사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閔寬植과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 과학화 모범 사례 발표회는 그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평소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하여 얻은 성과를 비교 평가하고 검토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장려제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사례 발표회를 계기로 하여 모든 국민이 과학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데 앞장서는 氣風이 振作되고 아울러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이땅에 전국민 과학화운동이 정착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崔鍾洙과학기술처장관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에서는 국민 모두가 "科學" 과 "技術"을 학문으로 보다는 생활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러서 어릴 때부터 原因을 探究하고 理致를 깨달아 그 결과를 實踐하는 習慣이 몸에 배게 될 때 라야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진흥되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선진 복지 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되는 훌륭한 사례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확

산 보급되므로서 전국민 과학화의 상상하고 튼튼한 뿌리가 이땅에 깊숙히 뻗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례 발표회는 1. 2부로 나누어 개최식과 사례 발표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는데 이번 事例 발표에서는 총응모작 1백여편 가운데 예비심사에서 통과된 일반부문 3건, 주부부문 3건, 학생부문 3건, 도합 9건의 모범 사례가 발표되었다.

金東一박사(과학상임고문)를 심사위원장으로 한 9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해 뽑힌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科總會長賞(일반), 科技處長官賞(주부), 文教部長官賞(학생)과 副賞 30만원, 獎勵賞은 科總會長賞과 부상 10만원, 努力賞은 부상 5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는데 수상자 명단 및 사례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우수상

△ 李盛一(전남 완도군 전남새마을기술봉사단원) / 깃벌에 쏟은 집념의 승리

△ 高秉璇(주부, 청주시 모충동 415-1) / 의식주의 합리적 생활과학화

△ 李鎮熙(학생 충북보은군 삼산국민교 5년) / 탐구하는 마음씨와 실천하는 행동

◆ 장려상

△ 金鍾君(경남 함양위성국민교 교사) / 생활의 과학화를 저해하는 미신의 실태와 그 타파방안

△ 朴淳點(주부·경남거창군가조면 마상리 229) 농촌주택의 부엌개량

△ 趙殷成(학생·서대문구 만리동환일중 2년) / 생활의 눈 과학의 눈

◆ 노력상

△ 芮鍾學(부산 진국교 교사) / 동천강을 사랑하는 꼬마과학자들

△ 洪承禧(주부·진해시 이동 313-4) / 생활의 과학화

△ 黃大淵(학생·전북남원국교 6년) / 과학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들

振興政策 등 論議 評議員會, 醫保사업도

지난 19일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열린 科總 評議員會에서는 학술활동지원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건의문구는 科總에 既 설치돼 있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金基衡)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의견을 종합 보완하여 작성기로 했다.

그리고 학회 학술활동 조성사업은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어 올해 4천만원에서 80년도에는 7천 2백만원으로 증액했으나 국제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술활동 조성비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단체 사무직원의 후생을 위한 회원단체직원 의료보험가입문제는 사무처에 위임, 적극추진키로 하고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科總에 窓口設置요청

李희장 在歐科學者 誘致問題 등

在歐韓國科學技術者 聯合會 차기 회장인 李慶鍾 박사는 12월 4일 鄭助英 科總事務總長을 방문하고 國內外科學技術者의 相互協力 및 관련업무에 關係 協의했다.

이 자리에서 李 박사는 在外 한국 과학기술자가 국내 취업 및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을 희망할 경우 과총이 이를 알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독일에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현지 실정에 어두어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독일을 비롯한 제외국에 대한 사전에 information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韓國科學院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차 일시 귀국한 李 박사는 지난 11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제구 과연 임원회에서 80년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10월 20.21 제독과 협총회에서는 제독

과협 회장으로도 선출된 바 있다.

현재 서독 Braunschweig 공대 교수로 재직 중인 李 박사는 59년 서울공대 금속과를 졸업한 후 원자력 연구소 재직시 渡獨, 65년 아헨 공대에서 工學博士 학위를 취득한 뒤 서독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 美國 Ames 연구소 Atomic Energy Res. 연구원 등을 거쳐 74년부터 현재의 브라운슈바이시 대학에 재직 중이다.

李 박사는 76년과 77년 두 차례에 걸쳐 과학원 초빙 교수로 일한 바 있다.

課題의 重複 등 검토
國民住宅問題 研究委

17일 79년도 제 12차 國民住宅 문제 연구 위원회를 열고 국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과제 및 문제점을 재검토했다.

그리고 각종 건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게 될 綜合研究所를 신설 운영 하는 문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編輯後記

눈부신 發展과 危難의 소용돌이 속에서 70年代도 저물었다.

이 마지막 頂點에서 돌아보는 지난은 길은 多枝多樣하여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어쨌든 새로운 歷史의 章을 남기고 이제 大望의 80年代를 맞이 하게 된 感懷가 자못 크다.

“과학과 기술”誌의 送年號는 第1回 科學化模範事例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模範事例와 科學技術界의 지난 한해 동안의 實績을 다루었다.

紙面關係로 餘他研究所의 業績을 실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게재하여 온 “나의提言” “海外情報” “海外話題” 科學技術의 社會的 役割과 “生活科學”을 紙面關係로 쉬게 됐다. 너그러운 理解있기 바라며 지난 1年 동안 指導 鞭達하여 주신 愛讀者 諸賢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편집부)

科 總 動 靜

- 11월 29日 : 安世熙(연세대부총장) 韓格富(학술원 회원) 姜熙浩(동아제약사장) 申應均(한국운용과학회장) 趙完圭(서울대부총장) : 회장단 회의 참석차.
- 12월 1日 : 權寧大(한국원자력연구소 학술고문) 金在官(표준연구소장) : “기술협력지” 편집회의 참석차.
- 12월 4日 : 李慶鍾(재구과연 차기 회장) : 과학기술자의 교류 및 관련업무 협의차.
- 12월 5日 : 安世熙(연세대부총장) 成佐慶(한국화학연구소장) 崔相業(서강대부총장) 金基衡(초대과기처장관) : 제 1차 과학기술정책연구

- 위원회 참석차.
- 12월 6日 : 金汶尙(학술원 회원) 禹亨驛(서울공대교수) 李樛(서울공대교수) 金海琳(기술사회 명예회장) 玄信圭(육종학회 회장) 李秉澈(해양개발연구소장) 李春根(서울치대교수) 丁榮植(한양공대교수) 李濟九(서울대 명예교수) : 과학기술 30년사 기술부문 특별위원회 참석차
- 12월 7日 : 洪文和(서울대교수) 徐光云(한국일보 과학부장) 河英洙(이화여대 간호대학장) 林路圭(과기처 진흥국장) 金在權(시 교육위원회 장학사) 高處璜

- (경향신문업 무국장) 尹瑞石(중앙대교수) : 과학화모범 사례 발표회 1차 심사위원회 참석차.
- 12월 10日 : 表鉉九(한국식물보호학회 회장) : 학회 보조금에 따른 업무 협의차. 俞炳高(대한약사회 간사장) : 인사차.
- 12월 17日 : 愼武賊(대한건축학회 회장) 朱鍾元(서울공대교수) 安瑛培(서울산업대교수) 李廷德(고려대공대교수) 宋鍾奭(연세대공대교수) 趙恒九(대한주택공사 기술이사) : 제 2차 국민 주택 문제 연구위원회 참석차.